

기본연구
2010-15

기본연구
2010-15

충남의 歸農·歸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남의 歸農·歸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유 학 열

2010·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149-6 03350

기본연구 2010-15

충남의 歸農·歸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유 학 열

발 간 사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는 도시민의 농촌으로 이주 즉, 歸農·歸村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10여 년 간의 귀농·귀촌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생계를 위한 專業農형태의 귀농이 많았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30~40대를 중심으로 한 兼業농업형 및 생태지향형 귀농이 주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최근까지는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붐세대의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回歸 현상까지 편승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해 오는 귀농·귀촌수요에 대해 기존의 지원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 즉,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였으며 둘째, 귀농·귀촌자의 유형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별 적합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낸 결과에 의해 충남지역의 최근 귀농가구 동향 및 충남 면지역으로의 도시민 이동행태 등을 분석,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귀농·귀촌 관련 지원책에 대한 평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충청남도 및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諮問과 協助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신 서천군 귀농인협의회를 비롯 홍성군, 금산군, 청양군에 거주하는 귀농인·귀촌인들에게 깊은 感謝의 뜻을 표한다. 아무쪼록 충청남도의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施策構想 및 후속연구에 有益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는 도시민의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붐세대의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도 편승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주거 공간을 농촌으로 옮기려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 속에 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또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응한 조치를 마련,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책의 대부분이 농업을 주요 경제 활동으로 하는 전업귀농인에 치중되어 있어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휴양·요양형’ 등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해 오는 귀농·귀촌수요에 대해 기존의 지원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일정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여,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징과 정책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둘째, 귀농·귀촌자의 유형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별 적합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5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는데, 즉 분석대상을 귀농인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해 온 모든 이주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농촌 이주 목적과 수입원, 생활 행태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독창성이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과거 10년 간의 귀농가구 동향 분석 및 충남의 30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으로의 이동행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적으로 충남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귀농·귀촌 정착 실태와 관련 지원책에 대한 평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진사례를 국내·외로 나누어 검토 하였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관련 지원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을 토대로 5가지 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어낸 연구결과는 크게 2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귀농·귀촌의 유형을 5가지로 도출한 점과, 둘째 유형별 지원방안을 제시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 유형은 귀농·귀촌을 하게 된 궁극적 목적과 생활 행태에 따라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지향형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은퇴귀농형 18.6%, 전업귀농형 1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서천군의 경우 도시출퇴근형이 평균 보다 높았으며, 홍성군의 경우는 전업귀농형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금산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은퇴귀농형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 지원방안도 제시하였는데, 전업귀농형의 경우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과 지역의 핵심농업인으로서 역할이 가능한 전문 귀농인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귀농형의 경우 은퇴귀농인의 제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영농 지원과 비농업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지향형의 경우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침체된 농촌지역사회 활력소로서의 역할도모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연구의 흐름	9
제2장 관련 연구 및 정책 검토	10
제1절 관련 연구 검토	10
제2절 관련 정책 검토	15
제3장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와 특성	25
제1절 귀농·귀촌 동향 분석	25
제2절 귀농·귀촌의 행태적 특성	33
제4장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44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44
제2절 국외 사례 분석	53
제5장 귀농·귀촌 유형별 지원 방안	59
제1절 지원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	59
제2절 유형별 지원 방안	64
제6장 결론	67
제1절 요약	67
제2절 연구의 한계	68
참고문헌	69
부 록	71

표 차례

<표 1-1> 귀농·귀촌 유형 파악을 위한 분석 항목 및 내용	5
<표 1-2> 귀농·귀촌 유형별 구분 기준	6
<표 1-3>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조사 세부 항목	7
<표 2-1>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	14
<표 2-2>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	15
<표 2-3> 주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유형별 분류	19
<표 2-4>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 예시	21
<표 3-1> 전국의 귀농가구 연도별 현황	26
<표 3-2> 조사 대상 지역	28
<표 3-3> 조사 대상 지역의 전입자 수(2009년)	29
<표 3-4> 전출지의 시·도별 분포 현황(%)	32
<표 3-5> 대상지역별 설문조사 회수율 및 유효회답율	33
<표 3-6>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34
<표 3-7> 유형별 지역별 분포(%)	40
<표 3-8> 전업귀농형과 은퇴귀농형 비교	42
<표 4-1> 농업체험연수 및 농업실무연수를 통한 귀농까지의 과정	54
<표 4-2> 오까야마현 귀농지원을 위한 연수	55
<표 4-3> 오까야마현 귀농지원자금의 종류	57
<표 5-1> 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60
<표 5-2> 유형별 정책수요 정리	63

그 립 차 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9
[그림 3-1] 충남의 귀농가구 추이	27
[그림 3-2]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전입자 연령별 분포	29
[그림 3-3] 충남 농촌지역 전입자의 전출지 지역	30
[그림 3-4] 충남 농촌지역 전입자의 전출지 지역 분포	31
[그림 3-5]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34
[그림 3-6] 응답자의 출생지 분포	35
[그림 3-7] 응답자의 농촌생활 경험 유무	35
[그림 3-8] 응답자의 가족구성원 분포	35
[그림 3-9] 응답자의 동거실태	35
[그림 3-10] 응답자의 이주 전 주소지 분포(%)	36
[그림 3-11] 귀농·귀촌 목적(%)	37
[그림 3-12] 귀농·귀촌자의 거주 형태	38
[그림 3-13] 귀농·귀촌자의 주거 소유 형태	38
[그림 3-14] 귀농·귀촌가구의 농업소득비율(%)	39
[그림 3-15] 서천군 귀농·귀촌 유형	40
[그림 3-16] 홍성군 귀농·귀촌 유형	40
[그림 3-17] 금산군 귀농·귀촌 유형	40
[그림 3-18] 청양군 귀농·귀촌 유형	40
[그림 5-1] 지원책에 대한 평가 결과	5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는 도시민의 농촌¹⁾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10여 년 간의 귀농·귀촌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생계를 위한 專業農형태의 귀농이 많았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30~40대를 중심으로 한 兼業농업형 및 생태지향형 귀농이 주류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최근까지는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붐세대²⁾의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도 편승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직업과 나이,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찾아 생계 수단과 주거 공간을 농촌으로 옮기려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농촌지역의 과소화 해소 및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의 활용을 통해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또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응한 조치를 마련,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관점의 타당성과 방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김정섭, 2009)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원책의 대부분이 농업을 주요

1) 농촌지역의 정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면(面)지역 이하의 지역으로 설정함

2) 베이붐세대란 전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됨

경제 활동으로 하는 전업귀농인에 치중되어 있어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휴양·요양형’ 등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해 오는 귀농·귀촌수요에 대해 기존의 지원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하는 지적이다. 즉,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일정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여,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징과 정책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지원책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도 반드시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둘째, 귀농·귀촌자의 유형에 따른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별 적합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충남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 분석(귀농·귀촌의 인구학적 특성)이라 할 수 있고, 둘째는 충남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가구의 실태 분석(귀농·귀촌의 행태적 특성)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귀농·귀촌 관련 지원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 파악이며 마지막 넷째는 귀농·귀촌 유형별 지원 방안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 대상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귀농인은 본격적으로 농업생산(영농활동)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로 전입한 자를 의미하며, 귀촌인은 앞서 설명한 귀농인을 제외한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로 전입한 자를 뜻한다.

3)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귀농·귀촌인 모두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면부이하)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1) 제1단계: 문헌고찰

-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대책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 고찰
- 귀농·귀촌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귀농·귀촌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고찰

2) 제2단계: 전문가 자문 및 예비설문조사

-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제 진단 및 예비설문 항목 설정
- 본 설문조사 설계를 위한 사전 예비설문조사 실시 : 2010년 6월, 서천군, 홍성군
- 대상 : 서천군, 홍성군 거주 귀농인 2명

3) 제3단계: 설문조사 및 현지 인터뷰조사(심층면접조사)

(1) 설문조사①

- 실시 시기 : 2010년 6월 28일 ~ 7월 15일
- 실시 지역 : 서천군, 홍성군
- 조사 규모 : 서천군(120부), 홍성군(40부)
- 조사 대상 : 서천군, 홍성군으로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자
- 조사 내용 :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책에 대한 평가

(2) 설문조사②

- 실시 시기 : 2010년 10월 20일 ~ 10월 31일
- 실시 지역 : 금산군, 청양군
- 조사 규모 : 금산군(30부), 청양군(22부)
- 조사 대상 : 금산군, 청양군으로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자
- 조사 내용 :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책에 대한 평가

(3) 현지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 실시 시기 : 2010년 10월 ~ 11월
- 실시 지역 : 서천군, 홍성군
- 조사 규모 : 지역별, 유형별 고려 약 10명
- 조사 대상 : 상기 설문조사 결과 귀농·귀촌 유형을 도출, 유형별 조사 대상 설정
- 조사 내용 : 유형별 귀농·귀촌 정착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
- 조사 방법 : 반구조화된 설문지 사전 작성, 면접과정 동안 피조사자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음

3. 분석의 틀

1) 귀농·귀촌 유형 파악을 위한 분석 항목 및 분석 내용 설정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한 분석 항목으로 귀농·귀촌 목적,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기본 생활권을 설정하였다(표1-1 참조).

〈표 1-1〉 귀농·귀촌 유형 파악을 위한 분석 항목 및 내용

분석 항목	분석 내용
귀농·귀촌 목적	농업/전원생활/노후휴양/취미/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등
거주 형태	상주/비상주(주말 거주)
가계 소득	농업소득/농업외소득
영농 형태	전업/겸업/취미농(가정채원)
기본 생활권	농촌(현거주지)/도시

귀농·귀촌유형화를 위한 구분 기준은 이주목적,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등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유형을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 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 전업귀농형 :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농촌으로 이주한 형태를 말하며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소득인 형태
- 은퇴귀농형 : 도시에서 직장을 은퇴 또는 퇴직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 겸업 형태의 영농을 하는 형태로 가계소득의 일부가 농업소득인 형태
- 농촌지향형 : 농촌생활·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형태
- 노후휴양형 : 은퇴 후 농촌에서 휴양이나 요양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형태
- 도시출퇴근형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

〈표 1-2〉 귀농·귀촌 유형별 구분 기준

구분	전업 귀농형	은퇴 귀농형	농촌 지향형	노후 휴양형	도시 출퇴근형
이주 목적	영농	영농+ 전원생활	농촌생활 전원생활	휴양·요양	전원생활
거주 형태	정주	정주	정주	정주	반정주
가계 소득	농업소득 > 비농업소득	농업소득 ≈ 비농업소득	농업소득 < 비농업소득	비농업소득	비농업소득
영농 형태	전업농	겸업농	겸업농	가정채원	가정채원
영농 규모	대규모 (1ha이상)	중·소규모 (0.5~1ha)	소규모 (0.5ha 미만)	-	-
생활권	농촌	농촌	농촌	농촌	농촌+도시

2) 지원책의 실효성 분석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분석내용 설정

귀농·귀촌자를 위한 기존의 지원책이 어느 정도 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실효성 분석과 더불어 유형별 안정적 농촌 정착에 필요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내용을 설정하였다.

- 귀농·귀촌자들의 지원책 활용 실태
- 각종 지원책에 대한 만족도(5단계 평가)
- 각종 지원책의 미흡한 점(개선할 점)
- 새롭게 요구되는 지원책

3) 설문조사 도구

설문조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등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귀농·귀촌을 한 목적, 준비기간, 거주 형태 등 귀농·귀촌 후 정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였고, 더불어 귀농·귀촌 지원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요구되는 정책수요를 질문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1-3〉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1. 인적사항	성별, 연령, 학력, 현거주지, 전거주지, 가족구성원
2. 직업	농업(전업농/겸업농/취미농), 비농업(구체적)
3. 가계소득	농업소득/비농업소득 비율
4. 영농현황	영농규모, 영농형태(경종/축산/시설/기타), 주품목, 토지 소유형태(자가/임대), 생산자조직 가입 여부
5. 주거현황	소유형태(자가/전세/월세), 거주형태(상주/비상주)
6. 생활권	현 거주지, 타 지역(도시), 주변도시(출퇴근)
7. 이주전 생활	직업, 이주전 거주지, 농촌생활 경험 유무
8. 귀농·귀촌 준비	준비기간
9. 귀농·귀촌 목적	영농/전원생활/노후휴양/건강·요양/농촌지향/취미
10. 귀농·귀촌지 선정	선정이유
11. 애로사항	
12. 지원책 평가	지원 받은 경험 유무, 지원책별 평가, 정책 수요
13. 기타	특기

4) 인터뷰조사 도구

인터뷰조사에서는 귀농·귀촌자의 정착 실태 및 관련 지원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항목을 설정하였다.

(1) 정착 실태

- 귀농·귀촌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며 최종적 귀농·귀촌의 목적은 무엇인가?
- 귀농·귀촌지로서 현재의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기준)는 무엇인가?
-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기간과 구체적 준비내용은 무엇인가?
- 귀농·귀촌시 가족들 간의 의견 충돌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가?
- 농촌으로 이주 후 지금까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정착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마찰은 없었는가?
-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 다시 도시로 나가 살 생각은 없는가?

(2) 관련 지원책에 대한 평가

- 실제로 귀농·귀촌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가?
- 귀농·귀촌자가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의 지원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 안정적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내용은 무엇인가?

제3절 연구의 흐름



[그림 1-1] 연구의 흐름

제2장 관련 연구 및 정책 검토

제1절 관련 연구 검토

1. 귀농·귀촌 개념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박영일(1998)은 귀농자를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자로 규정하였고, 도시 출신 또는 재촌(在村) 비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취농자(就農者)로 분류하였다.

이정관(1998)은 귀농자를 농촌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자가 농촌을 떠나 비농업적 직업을 갖고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에 정착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김형용(1998)은 귀농자를 과거에 농업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출했다가 다시 농촌에 돌아와 영농을 하는 자, 또는 과거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인이 농촌으로 가서 영농을 새로이 시작한 자로 정의하였다.

이동화(1998)는 귀농자를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거주지를 변화시키고 그 곳에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시립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정섭(2009)은 귀농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귀촌은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으로 정리하였다.

김창현외(2008)는 ‘농촌移住’란 영농여부에 관계없이 도시민이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U턴, J턴, I턴 이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민수·이승형·김명룡·김정섭(2009)은 전라북도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귀농동기

와 정책요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귀농·귀촌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들 유형에 따른 귀농자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유형은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 4개의 유형이다.

또한 김창현·강호제·이종열(2008)은 농촌이주의 목적에 따라 ‘취업형’, ‘노후생활형’, ‘도시 출·퇴근형’으로 구별하였는데, 취업형의 경우 營農·營漁·營林 등을 위해서 농촌소재 산업단지 입주 및 취업, 농촌관광의 경영이나 종사 등을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유형이다. 노후생활형의 경우 도시에서의 은퇴 등을 사유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 도시 출·퇴근형은 도시 근교에 전원주택 등을 마련하여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유형을 뜻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농촌이주 목적만을 가지고 유형화 했다는 점과 유형에 따른 각각의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연구들의 한계라 볼 수 있다.

서규선·변재면(2000)은 귀농인의 유형을 도시와 농촌, 고향과 타향으로의 공간을 구분하여 3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즉, 고향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고향 농촌으로 돌아 되돌아온 형태(U턴귀농형), U턴 귀농자와 달리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농촌으로 귀농한 형태(J턴귀농형),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형태(I턴귀농형)로 구분하였다.

2. 귀농·귀촌 실태 파악에 관한 연구

정천섭(2008)은 전라북도 진안군 사례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귀농·귀촌형태와 귀농·귀촌인의 생활과 의식 실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하였으나, 최근의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조록환(1998)은 IMF체제 이전인 1996년까지 귀농한 농가를 대상으로 귀농 관련 실태와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귀농관련 실태와 귀농가구 생활실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즉 귀농 관련 실태로서 귀농동기, 귀농 시 애로사항, 영농교육 실태를 귀농가구

생활실태로서 주거형태, 귀농생활 시 애로사항, 향후 정착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운미·김정태·이성(2004)은 귀농한 농업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귀농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귀농 시 애로사항, 귀농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김형용(1998)은 전남지역으로 귀농한 자를 대상으로 귀농전 직업, 귀농자의 영농실태, 귀농사유, 농촌생활의 애로사항 등 귀농자의 정착실태를 면밀히 파악,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착방안을 모색하였다.

3. 귀농·귀촌 지원책 및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부(2006)는 농업 인력의 확보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 인력의 개발을 전제로 귀농자들의 특성별, 단계별 안정적 정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귀농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섭(2009)은 최근의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견지해야 할 관점을 예리하게 정리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임경수·전호상·김종구·심수영·김도희(2006)는 도시민의 농어촌체재 및 정주 수요, 국내외 귀농 사례, 귀농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분석 등을 통해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체재 및 정주 활성화 방안을 ①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 수요의 확대 방안, ②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③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④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유학열·박철희·한상욱·조봉운(2007)은 일본의 영농 후계인력(귀농인 중심) 지원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

다. 예를 들면 상담·지원창구의 광역적 네트워크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농후계자 육성프로그램 개발,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 지원책 마련, 효율적 재정적 지원이 그 특징이다. 또한, 영농 후계인력 정착을 위한 단계별(귀농前, 귀농後) 지원방안과 귀농까지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임혜영(1999)은 전라남도 9개 시·군의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귀농자가 가지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귀농의 전반적인 배경, 생활환경 특성들을 각각의 복지문제와 관련시킨 후 그 변인들이 농촌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도 및 복지문제들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귀농자의 바람직한 농촌적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공주·김양희·박정윤(2007)은 은퇴 후 귀농인의 귀농유형별(U, J, I형)에 따른 농촌이주 준비 실태와 농촌이주 후 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도시은퇴자의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공주·윤순덕·강경하(2006)는 도시민이 농촌이주 후 농촌생활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특히 귀농인의 농촌이주 전과 농촌이주 후의 두 단계로 나누어 각각 관련되는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이 귀농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상호(2008)는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귀농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귀농이후 안정적인 정착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원 방안으로 농촌지역의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위치, 규모, 접근성 등에 대한 DB 구축과 기존 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4.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귀농·귀촌자의 생활 실태 및 영농 실태 등 정착과정의 실상을 조사, 분석해 놓은 연구와 농촌으로 이주 후 농촌생활 정착에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최근에는 농촌이주 前과 농촌이주 後로 구분, 단계별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제법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

본의 선행연구는 농촌에 이주해 농업을 주요 경제 활동 영역으로 설정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농촌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귀촌인을 포함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농촌 이주 목적에 기준을 두고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징을 도출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유형별 지원방안까지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 분석대상을 귀농인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해 온 모든 移住人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 농촌이주 목적과 정착 특성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는 점. 셋째, 유형별 정착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2-1〉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제목	연구 대상	유형화 기준	유형별 지원방안
주요 선행 연구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이민수외, 2009)	귀농인+ 귀촌인	이주동기 정책요구	X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김창현, 2008)	귀농인+ 귀촌인	이주목적	X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개발(서규선외, 2000)	귀농인	이주행로	X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박영일, 1998)	귀농인	X	귀농인 지원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김성수, 2004)	귀농인	X	귀농인 지원
본 연구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귀농인+ 귀촌인	이주목적+ 정착실태	◎

제2절 관련 정책 검토

1. 중앙정부 정책 검토

정부가 귀농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 1990년대 중반 귀농 운동본부 등 민간부문 사회단체가 주도하여 도시민들의 귀농을 촉진하는 운동이 조금씩 저변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폭발적인 귀농 인구 증가는 정부 차원의 귀농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다. 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정책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표 2-2〉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주요 내용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산업인턴제	- 농업분야 창업 준비를 위한 영농실습 지원
	귀농교육 프로그램	-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귀농인의 집	-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 영농기반 또는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신용보증 지원	- 담보능력이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 보증
	빈집수리비 지원	- 귀농가의 주택 마련 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정책국	전원마을조성	- 20호 이상의 농촌주택단지 공급 - 신규 전입자에게 분양
	농어촌뉴타운 조성	- 50호, 100호, 200호 규모의 농촌주택단지 - 농업 및 농산업 종사 예정자에게 분양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역 홍보 - 귀농·귀촌 희망자 및 신규 전입자에게 필요 한 교육 등 연성적 프로그램 지원

자료: 김정섭(2009)

1) 귀농인 농어업창업자금 지원사업(웅자) 및 농가주택마련 지원사업(웅자)

(1)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정착 유도

(2) 지원 내용

- 농어업창업자금지원사업 : 세대당 10~200백만원(금리3%,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농가주택마련지원사업 : 세대당 40백만원(금리3%,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3) 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직접 종사하는자 등
- 과거 5년 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실제거주 및 종사 하는 자로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 또는 농업관련 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2) 지원 내용

- 세대당 5백만원 한도(전액보조), 국고70%, 지방비30%
-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3) 대상자

- 상기와 동일

3)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어촌체험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2) 지원 내용

- 세대당 신축 40백만원, 보수20백만원(전액보조), 국고 70%, 지방비 30%

(3) 대상자

- 마을영농회, 마을주민, 비영리법인 등

4)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

(1) 목적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인력이 향후 강한 농어업·농어촌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2) 지원 내용

- 1인당 월 120만원(국고 50%, 도 9%, 시군 21%, 자부담 20%)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자부담금(24만원)을 인턴에게 지급한 후 시장·군수는 지원금 80%(96만원)을 인턴에게 직접 지급

(3) 대상자

- 귀농인, 농업인턴 및 인턴채용대상자로 선정된 자

5) 기타 사업

○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을 발굴하여 농촌이주 및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비 : 시·군별 10억 원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시범사업)

-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

- 단지 규모 : 50~300세대

- 시범사업 : 2009~2011년, 5개소

- 맞춤형 영농지원 프로그램,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제공, 주택공급

○ 전원마을 조성사업

- 농어촌 주민은 물론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정주를 유도
- 2013년까지 총 300개 지구 조성
- 10~30억 원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농고 현장체험 지원 : 10개 농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비 지원
- 농업인턴제 : 선도농가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 지원
- 대학생 창업 연수제 : 농과대 3~4학년생 대상, 연수비용 지원
-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 영농시설자금 지원
- 신규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 영농시설자금 지원
- 창업농 후견인제 : 후견인에게 월 50만원 지원

2.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1) 사업 개요

(1) 목적

-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군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2) 시책 및 추진 방향

-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현지 사정이 밝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이주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시·군의 사회단체·교육기관 등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도농복합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지원액 : 시·군당 3년간 5~6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2) 사업 내용 검토

여기서는 2010~2012년 사업대상 22개 시·군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다. 본사업의 기본방향은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을 발굴하여 농촌이주 및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표 2-3〉 주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유형별 분류

	귀농지원센터	전원마을조성	귀농학교운영	홍보물, 정보지 제작	주민화합프로그램	농촌형일자리창출	농촌체험프로그램
강원화천	●	●	●	●			
강원양구	●		●	●	●	●	
강원양양	●		●	●			
충북단양	●		●	●		●	
충남금산	●		●	●	●	●	
전북남원	●	●	●	●			●
전북완주	●	●		●	●		
전북장수	●	●		●	●	●	●
전북진안	●		●	●	●	●	
전북순창	●			●			
전북고창	●		●	●	●		
전남순천	●	●		●			●
전남곡성	●		●	●	●		
전남장흥	●		●	●	●		●
전남강진	●		●	●	●	●	
전남영암	●		●	●	●	●	
전남영광	●		●	●			
전남장성	●		●	●		●	●
전남완도	●			●			●
경북안동	●		●	●	●		
경북상주	●		●	●			
경북봉화	●		●	●	●		●

전반적인 사업비 배분을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전담기구 설치에 10%, 귀농인의 집 조성,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분야에 30%, 각종 귀촌·귀촌 지원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60%로 되어 있다.

22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모든 시·군에서 귀농·귀촌 지원센터(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군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물·정보지 제작 등 대외적인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귀농(체험)학교를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한 농업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 외 기존 주민들과의 화합프로그램, 농촌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충청남도 정책 검토

1)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자영 농과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향후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양성
- 지원대상 : 자영농과생 250명

2) 귀농인재 발굴 자원화 사업(단기계획)

- 귀농·귀촌 정착 자금 지원

3) 귀농·귀촌 지원조례 제정(2009년 10월 현재)

-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천안시

4)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 서천군

5) 금산군 귀농·귀촌 정책(2010~2012)

-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
- 거주형 귀농·귀촌 체험농장 조성
- 도시민 귀농·귀촌 홍보 및 매뉴얼 제작
- 지역리더 및 귀농·귀촌자 아카데미 운영
- 도시민 귀농인의 집 운영프로그램 지원

【사례】 서천군 귀농지원센터(충남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1. 서천군 귀농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 1) 귀농인 조직운영: 귀농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귀농인 사랑방 운영, 귀농인 품앗이 활동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귀농인 단합 행사 등
- 2) 귀농·귀촌지원 사업: 빈집(토지)DB구축 및 정보 제공, 귀농귀촌인 상담,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투어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을 위한 홍보 등

2. 귀농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 귀농귀촌정책, 귀농부동산, 농촌관광, 로컬푸드, 생태 건축

〈표 2-4〉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 예시

시행 주체	사업 명	비고
중앙정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융자)	
	귀농인 농가주택마련 지원사업(융자)	
	귀농인 빈집수리사업(보조)	지방비 30%
	귀농인 집조성사업(보조)	
	귀농인 농업인턴사업(보조)	지방비 30%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시범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창업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충청남도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귀농인재 발굴 자원화 사업(계획)	
기초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 제정	7개 시·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서천군
	도시민귀농귀촌희망센터(계획)	금산군
	거주형 귀농귀촌 체험농장 조성(계획)	금산군
	도시민 귀농귀촌 홍보 및 매뉴얼 제작	금산군
	지역리더 및 귀농·귀촌자 아카데미운영	금산군
	도시민 귀농인의 집 운영프로그램 지원	금산군

3. 민간단체 정책 검토

1) 전국귀농운동본부

1996년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국본부로 출발한 순수 민간기구로서, 생태적 공동체마을 건설과 유기순환적 생명농업을 실천하는 일꾼을 양성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귀농학교를 생태귀농학교로 변경하고 이후 매년 4기씩 개최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귀농교육, 귀농 관련 정보 제공, 귀농자 네트워크 운영,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실습장 운영 등이 있다.

- 귀농교육: 생태귀농학교(도시민 대상 귀농 교육), 도시농부학교(도시의 텃밭농사 지도 교사 양성 과정), 주말농사학교(주말농장) 운영
- 귀농정보 제공: 귀농복덕방(주택, 농지 등의 매매, 임대차 정보), 귀농컨설팅(귀농자 대상 설문조사, 귀농준비자에 대한 자문 등), 귀농자료실(소식지발간, 주제별 총서 발간 등) 운영 등
- 귀농자 네트워크 운영: 분야별 귀농동호회(천연염색, 약초, 목공, 퍼머컬처, 생태건축 등) 운영, 연 1회 귀농인의 날 행사 개최 등
-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실습장 운영: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홍보와 직거래

그 동안의 성과로서 가장 괄목한 것은 연간 5~6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 그 가운데 약 15%가 귀농하는 한국 제1의 귀농인 양성 및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상사 귀농학교

실상사 귀농학교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수련원으로 지리산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귀농 교육 프로그램으로 1998년 시작되었다. 이와 별개로 서울에서 진행하는 불교귀농학교가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해 장기합숙교육과정으로 만든 귀농 프로그램이다.

약 2~3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생명농사와 철학, 생태농업, 공동체, 여가활동, 차치살림, 현장실습 등의 교과과정을 통해 귀농예정자의 올바른 지침이 되고 있다.

실상사 귀농학교 귀농 교육은 봄과 가을 두 차례 진행되는데 귀농 프로그램 이외에 생명

살림의 대안적 삶을 찾아가는 실상사대체의학 강좌안내 등을 만들어 현대문명이 발달할수록 늘어나는 사람의 건강과 자연환경의 훼손이 되고 있는 요즘 귀농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대체의학강좌도 개최하고 있다.

- 귀농교육은 봄과 가을에 대략 2~3개월 간 이루어지며, 학기당 수강료는 76만 원이다.
- 환경농업, 정신교육, 공동체적 가치관에 역점을 두고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농외소득을 위해 식품가공, 천연염색, 팜스테이 등에 대한 교육도 있다.
- 은퇴 후 전원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을 위한 과정으로서 실버 귀농학교가 개설되어 있다.

4. 시사점

귀농·귀촌 관련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기존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농업을 주요 경제활동으로 하는 전업귀농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 외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해 오는 귀촌자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젊고 가난하지만 농업노동력의 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한 귀농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 약간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귀촌자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아닌 농촌사회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몇 가지 개별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이 젊은 농업인력 확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음은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은퇴 후 귀촌 의향자들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함을 뜻한다. 젊은 귀농인이 농촌에서 가계를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농업소득 기반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정책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평균적인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만큼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을 귀농가들이 갖출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김정섭, 2009).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의 기간을 두고 시행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 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목표 설정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 기획 능력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 사업은 '귀농', '귀촌' 을 가리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인구 유지를 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연성적인 세부사업(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도록 한 것이다. 시범사업 추진 시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세부사업 중 하나가 '빈집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다. 지역 내의 빈집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넷에서 열람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는 데 수 천만 원의 예산을 쓴 시군이 7곳이다. 하지만 그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어 신규 전입가구가 실제로 빈집을 수리하여 정착한 사례를 볼 수 있는 곳은 드물다.

현재의 귀농·귀촌자를 위한 지원책은 대부분이 중앙정부 시책이고, 일부 시·군에서 독자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충청남도 차원의 시책은 아직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와 특성

제1절 귀농·귀촌 동향 분석

여기서는 우선, 과거 10여년간의 귀농가구수 변화를 살펴보고 충남의 총 146개 면지역 가운데 30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민의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이동행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동행태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면지역으로 전입해 온 전체 전입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및 전입 전 거주지(전출지)를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시도별 등으로 구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1. 귀농인구(가구)의 변화

1) 전국의 귀농인구(가구) 변화

농림수산식품부 및 충남도 농정과 통계자료를 인용 귀농인구의 전국적 동향을 살펴보면, 1997년 IMF위기 이후 귀농인구가 급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8년~1999년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가구수가 연간 약 4,000~6,000가구로 급증하였으나, 그 후 2005년까지는 연간 약 1,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연간 약 2,000가구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귀농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특히, 경북, 전북, 경남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으로의 귀농가구 비율은 전국 대비 약 10%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36.4%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27.1%를 차지하여, 30대와 40대 합친 비율이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경기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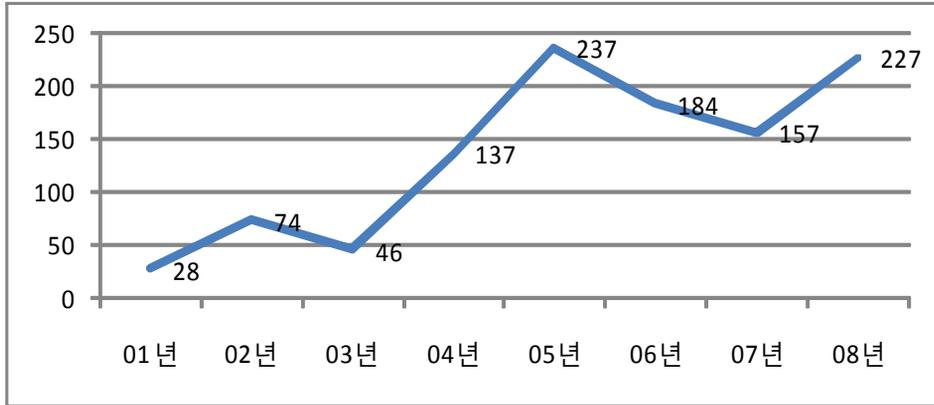
로 인해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한 젊은층이 생계를 위해 귀농한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60대 이상의 귀농자 비율이 '06년 22.0%, '07년 20.2%, '08년 23.8%로 2006년 이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 전국의 귀농가구 연도별 현황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1,802	6,374	4,039	1,150	879	768	880	1,280	1,205	1,749	2,384	2,218
경기	235	269	224	54	57	18	44	19	28	57	89	126
강원	125	470	330	151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충북	146	381	213	35	25	43	56	141	68	172	196	142
충남	172 (9.5%)	610 (9.6%)	382 (9.5%)	111 (9.7%)	28 (3.2%)	74 (9.6%)	46 (5.2%)	137 (10.7%)	237 (19.7%)	184 (10.5%)	157 (6.6%)	227 (10.2%)
전북	152	791	456	166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전남	160	1,636	1,048	230	77	67	51	37	89	249	257	289
경북	448	1,171	689	191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경남	309	902	489	119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제주	55	144	208	93	56	22	31	16	7	58	48	50

2) 충남의 귀농인구(가구) 변화

충남의 경우도 전국적인 경향과 유사하나,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기준 과거 4년 동안의 귀농가구수가 연평균 71.3세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4년 동안은 연평균 201.3세대로 약 3배가 늘어났다.



자료: 충청남도 농정과

[그림 3-1] 충남의 귀농가구 추이

2008년 기준 과거 8년 간 시·군별 귀농가구 추이를 분석해 보면 서천군이 140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주시(116세대), 논산시(106세대) 순으로 귀농가구가 많았다. 한편, 계룡시, 아산시, 예산군 등의 귀농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의 연령별 분포(2004년 기준)를 살펴보면 총 137가구 가운데 40대가 51가구(37.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9가구(28.5%), 30대 24가구(17.5%), 60대 이상 21가구(15.3%)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가구에 불과했다.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의 경우 5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충남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귀농·귀촌의 인구학적 특성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충남 전체 16개 시·군 가운데 계룡시³⁾를 제외한 15개 시·군별로 2개 면을 표본으로 선정 총 30개 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성격 을 고려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은 제외하였으며, 비교적 전형 적인 농산어촌의 특징을 가진 지역을 택하였다. 조사기준연도는 2009년이다.

〈표 3-2〉 조사 대상 지역

시군	대상 면	시군	대상 면	시군	대상 면
천안시	광덕면, 수신면	공주시	반포면, 계룡면	보령시	남포면, 청라면
아산시	송악면, 영인면	서산시	부석면, 응암면	논산시	광석면, 상월면
금산군	군북면, 복수면	연기군	전의면, 전동면	부여군	장암면, 구룡면
서천군	마서면, 문산면	청양군	비봉면, 대치면	홍성군	홍동면, 홍북면
예산군	응봉면, 오가면	태안군	오가면, 소원면	당진군	고대면, 정미면

(2) 조사 내용

- 면별 전입자 규모: 2009년, 1년간
- 면별 전입자의 성별, 연령별 비율
- 면별 전입자의 전 거주지(전출지)의 권역별(동일 시·군, 충청남도, 전국) 비율
- 면별 전입자의 전 거주지(전출지)의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비율
- 면별 전입자의 전 거주지(전출지)의 시도별 분포

2) 조사 결과

(1) 면별 전입자 규모

조사 대상지의 전입자 규모를 살펴보면 서산 응암면이 1,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 정미면 971명, 공주 반포면 871명 순이며, 서천 문산면이 140명으로 가장 적었다. 30개 지

3) 계룡시에는 신도안면, 엄사면, 두마면 3개의 면이 있으나, 신도안면의 경우 전주민이 군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엄사면, 두마면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해 외부 유입인구가 최근 급증한 지역으로 본 연구의 성격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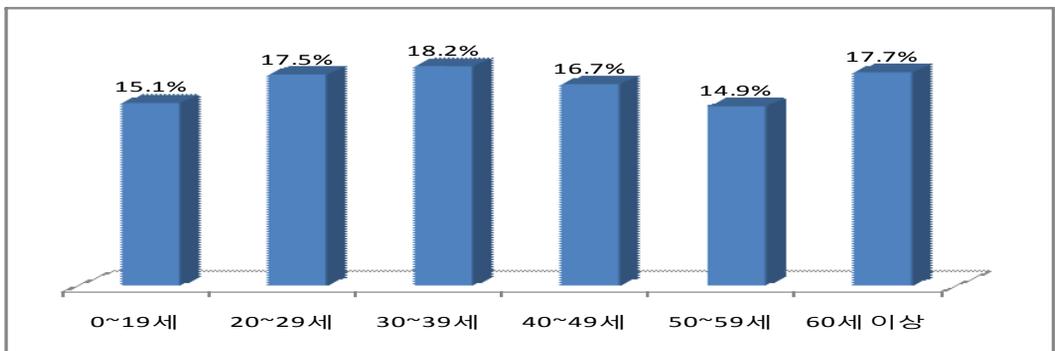
역 평균 전입자수는 518명이며 과반수가 300~700명 사이에 있다.

〈표 3-3〉 조사 대상 지역의 전입자 수(2009년)

지역	전입자(명)	지역	전입자(명)	지역	전입자(명)
천안 광덕	572	천안 수신	357	공주 반포	871
공주 계룡	653	보령 남포	714	보령 청라	392
아산 송악	123	아산 영인	686	서산 부석	585
서산 응암	1,717	논산 광석	547	논산 상월	154
금산 군북	318	금산 복수	523	연기 전의	674
연기 전동	405	부여 장암	295	부여 구룡	239
서천 마서	687	서천 문산	140	청양 비봉	207
청양 대치	228	홍성 홍동	384	홍성 홍북	452
예산 응봉	300	예산 오가	569	태안 소원	743
태안 이원	236	당진 고대	784	당진 정미	971

(2) 성별·연령별 특징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인구의 성별 비율은 남자 51.7%, 여자 48.3%로 성별에 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 연기 전동면(남자 비율 61.2%), 금산 군북면(남자 비율 57.9%), 청양 비봉면(남자 비율 57.5%)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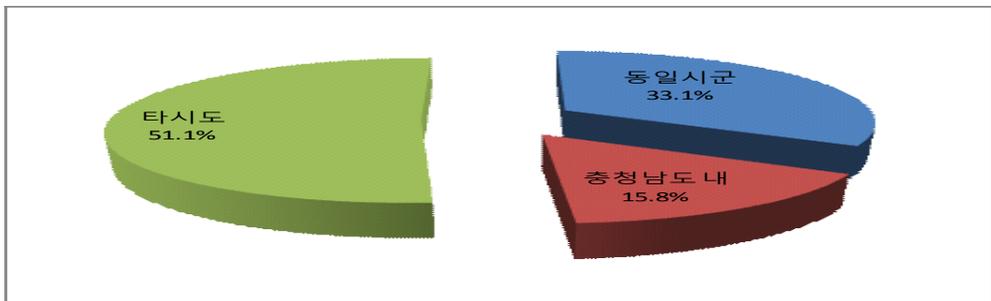
〈그림 3-2〉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전입자 연령별 분포

한편,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가 18.2%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17.7%, 20~29세 17.5%, 40~49세 16.7%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전입자가 제법 많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전입자가 많은 지역은 천안 광덕면, 아산 영인면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농촌지역과 홍성군 홍동면으로 귀농·귀촌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3) 전출지 권역별 특징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살펴본 결과, 동일 시·군에서 33.1%, 동일 시·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내에서 15.8%, 타시·도에서 51.1%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경우 충청남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전입해 왔다.

단, 특이한 점은 금산 복수면, 공주 반포면 경우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비율이 90% 가까이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 이유는 두 지역 모두 대전시와 인접해 있어 대전시로부터의 유입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그림 3-3] 충남 농촌지역 전입자의 전출지 지역

(4) 전출지 속성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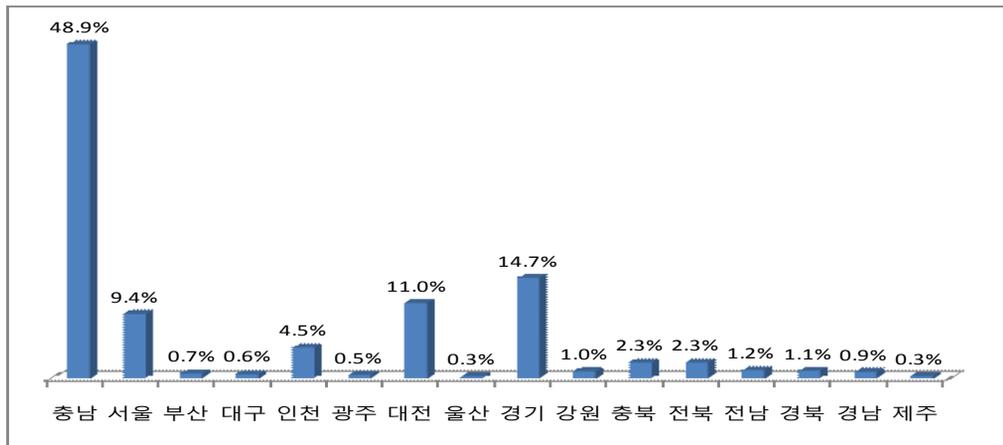
여기서는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도시/농촌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으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80.0%로 농촌지역의 20.0%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91.4%가 도시지역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주민들의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이주가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으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공주 반포면(90.0%), 금산 복수면(90.4%), 보령 청라면(89.3%)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관계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28.7%, 비수도권이 71.3%로 나타났으며 태안 이원면(53.4%), 당진 정미면(52.6%), 아산 영인면(41.3%)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유입이 전체 평균 보다 무척 높았다.

(5) 전출지의 시도별 분포 특징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시·도별로 살펴 본 결과 충남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4.7%로 충남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유입한 지역이다. 그 외 대전 11.0%, 서울 9.5%, 인천 4.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충남 농촌지역 전입자의 전출지 지역 분포

김창현외(2008)에 의하면 2006년 수도권 도시민이 충남 면지역으로의 이주 비율이 14.7%로 경기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02~08년)도 8.5%로 전국 평균 -1.7%에 비해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도시인구의 최대밀집지역인 수도권 도시민들의 경우, 충남 농촌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천안시 광덕면, 수신면의 경우 인근의 충북으로부터의 전입이 뚜렷이 많았으며, 공주 반포면, 금산 복수면, 금산 군북면의 경우는 대전시로부터의 유입이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서천 마서면의 경우 전북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비교적 많은 지역은 아산, 서천, 청양, 태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 이원면의 경우 예부터 인천지역과 연고가 깊은 탓인지 인천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22.0%로 경기, 서울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거리적 접근이 어려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1.0% 전후로 무척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3-4〉 전출지의 시·도별 분포 현황(단위 %)

		충남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⁴⁾
천안	광덕	58.4	5.1	1.6	4.9	4.7	1.0	6.5	14.9	1.9	0.0	1.0
	수신	56.6	5.0	0.8	3.6	10.9	1.7	11.2	2.8	0.8	0.0	6.4
공주	반포	12.3	7.2	1.5	61.5	5.9	1.5	2.0	2.5	2.1	0.1	3.4
	계룡	44.1	13.5	2.8	14.1	15.0	0.6	1.7	3.4	2.3	0.2	2.5
보령	남포	61.3	12.3	2.8	2.4	13.6	1.3	1.0	3.2	0.5	0.1	1.4
	청라	58.9	7.4	5.4	4.8	17.1	1.0	2.0	2.0	0.6	0.0	0.8
아산	송악	59.8	11.5	4.1	0.8	17.2	1.6	1.6	0.8	1.6	0.8	0.0
	영인	45.0	12.8	6.0	2.0	22.4	2.0	1.5	2.2	3.1	0.1	2.8
서산	부석	55.4	11.1	5.8	3.1	18.8	0.3	0.5	1.7	1.4	0.2	1.7
	웅암	61.8	9.2	5.1	3.2	11.7	1.3	1.3	1.8	2.5	0.2	2.0
논산	광석	55.9	6.0	1.5	19.7	6.8	0.2	1.8	4.6	2.2	0.0	1.3
	상월	47.4	5.2	0.0	18.2	7.8	1.3	2.6	6.5	7.1	0.0	3.9
금산	군북	30.8	2.5	1.3	47.5	4.7	0.0	3.5	2.2	2.8	1.6	3.1
	복수	9.4	5.2	2.1	59.5	10.9	1.3	4.0	2.3	3.2	0.2	1.9
연기	전의	45.7	8.8	5.2	6.1	17.7	0.9	5.0	2.5	4.8	0.0	3.4
	전동	46.4	12.3	1.2	6.9	13.3	0.7	12.1	1.9	1.7	1.0	2.2
부여	장암	59.0	7.5	3.4	10.5	14.9	0.3	0.7	2.0	0.7	0.0	1.0
	구룡	45.8	11.3	0.8	15.0	12.1	0.4	3.3	5.0	4.2	0.0	2.1
서천	마서	43.8	10.9	4.4	6.0	14.3	0.3	0.6	16.1	1.0	0.3	2.3
	문산	35.2	6.9	2.1	7.6	27.6	0.0	3.4	14.5	2.8	0.0	0.0
청양	비봉	36.7	13.0	4.8	10.1	23.2	2.4	2.9	3.9	1.9	0.0	1.0
	대치	49.1	11.0	1.8	9.6	21.5	0.4	1.3	1.8	0.4	0.0	3.1
홍성	홍동	70.1	6.8	3.4	2.9	12.5	0.8	1.3	0.8	0.3	0.3	1.0
	홍북	60.2	10.2	4.0	3.5	17.0	0.2	0.4	0.7	2.4	0.0	1.3
예산	응봉	55.7	11.0	4.0	2.3	18.0	0.3	2.0	3.4	1.4	0.3	1.7
	오가	63.1	8.3	1.4	4.0	14.4	1.2	1.4	2.8	1.4	0.2	1.8
태안	소원	53.8	11.0	8.6	1.9	15.5	1.3	0.8	1.1	2.0	2.8	1.1
	이원	30.1	14.4	22.0	1.7	16.9	3.4	2.1	4.6	0.4	0.4	3.8
당진	고대	57.0	9.6	6.1	3.8	14.9	1.3	1.1	2.7	1.5	0.4	1.5
	정미	41.2	11.6	11.3	0.9	29.7	0.7	0.9	0.8	1.4	0.2	1.1
평균		48.9	9.4	4.5	11.0	14.7	1.0	2.3	3.5	2.0	0.3	2.0

4) 기타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광역시를 말함

제2절 귀농·귀촌의 행태적 특성

여기서는 이미 충남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귀농·귀촌 정착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충남을 서해안권(서천군), 내륙권(홍성군, 청양군), 대도시주변권(금산군)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 조사 개요

조사는 2010년 7월,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서천군, 금산군, 청양군의 경우는 우편조사, 홍성군의 경우는 현지 귀농인의 협조를 받아 현지 배부·회수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규모는 서천군 120명, 홍성군 40명, 금산군 30명, 청양군 22명 총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서천군이 47부, 홍성군 16부, 금산군 9부, 청양군 6부 총 7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유효회답은 서천군 39명(31.9%), 홍성군 16명(40.0%), 금산군 9명(30.0%), 청양군 6명(27.3%) 합계 70명(유효회답률 33.0%)이다.

〈표3-5〉 대상지역별 설문조사 회수율 및 유효회답율

	서천군	홍성군	금산군	청양군	합계
배부수(명)	120	40	30	22	212
회수율(명)	39.2%(47)	40.0%(16)	30.0%(9)	27.3%(6)	36.8%(78)
유효회답률(명)	32.5%(39)	40.0%(16)	30.0%(9)	27.3%(6)	33.0%(70)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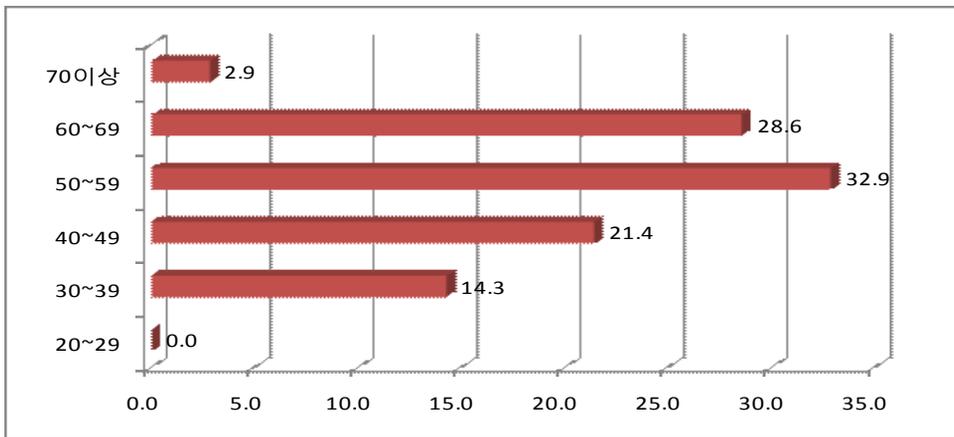
1) 성별 및 연령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57명(81.4%) 여성이 13명(18.6%)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설문조사의 표본이 대부분 세대주였기 때문이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8.6%, 40대 21.4%, 30대 14.3% 순으로 나타났다. 5~60대의 중장년이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표3-6〉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57명	13명	0명	10명	15명	23명	20명	2명
81.4%	18.6%	0%	14.3%	21.4%	32.9%	28.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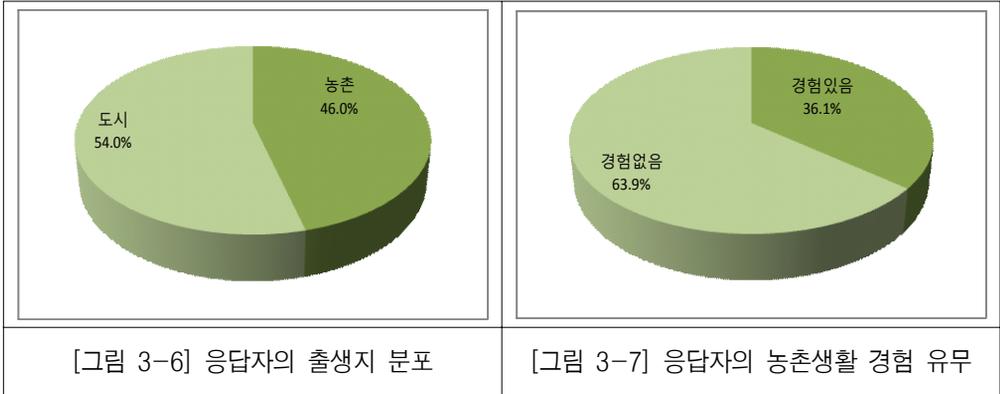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금산군의 경우 60대 이상이 88.9%로 고령층 귀농·귀촌인이 많았으며 반면 홍성군은 3~40대가 75.0%를 차지하고 있어 홍성군의 경우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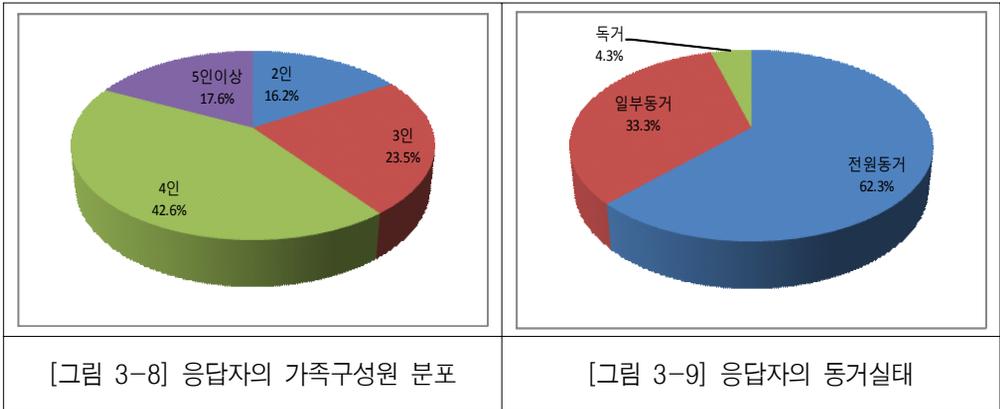
2) 출생지 및 귀농·귀촌前 농촌생활 경험

응답자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54.0%, 농촌지역 46.0%로 도시지역 출신자가 약간 많았다. 귀농·귀촌전의 농촌생활 경험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다’가 63.9%로 ‘경험이 있다’ 36.1%보다 높게 나타나 3명 가운데 1명만이 귀농·귀촌 전에 농촌생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구성원 및 가족과의 동거 실태

가족구성원을 살펴보면 4인 가족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3인 가족 23.5%, 5인 가족 이상이 17.6%, 2인 가족 16.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과의 동거 실태는 62.3%가 구성원 전원이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동거를 하고 있다가 33.3%, 독거(독신)의 경우 4.3%로 약 40%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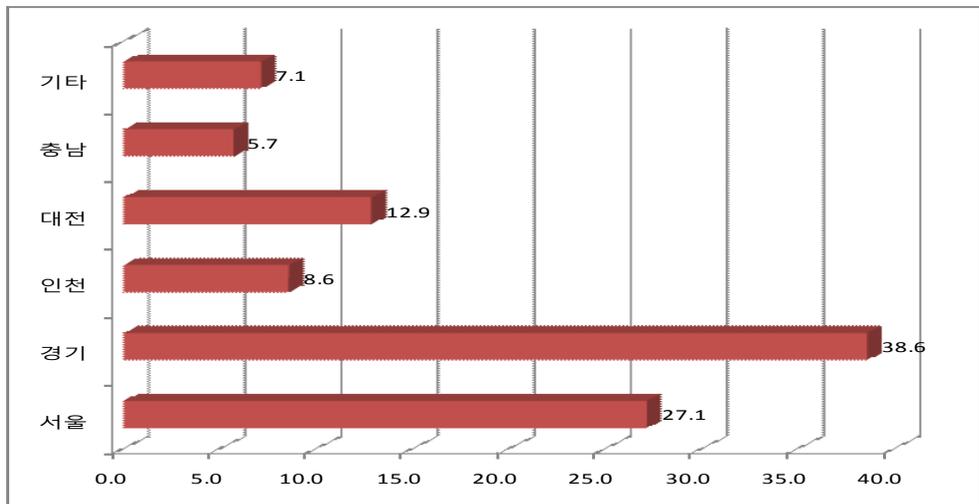
4) 직업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직업으로는 회사원(공무원 포함)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소도매업, 운수업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예술인, 방송인, 건축가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자도 적지 않다(8.6%)는 점이다.

한편, 이주 後의 직업으로는 농업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홍성군의 경우 68.8%가 농업을 직업으로 갖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직업이 없는 무직(일용직 포함)의 경우도 20.0%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5) 귀농前 거주지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하기 직전의 거주지(전출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7.1%, 대전 12.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천 8.6%, 충남 5.7%, 기타 7.1%로 나타나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지역에서의 전입이 74.3%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천군의 경우 81.5%, 홍성군의 경우 87.5%가 수도권지역으로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산군의 경우는 인접한 대전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5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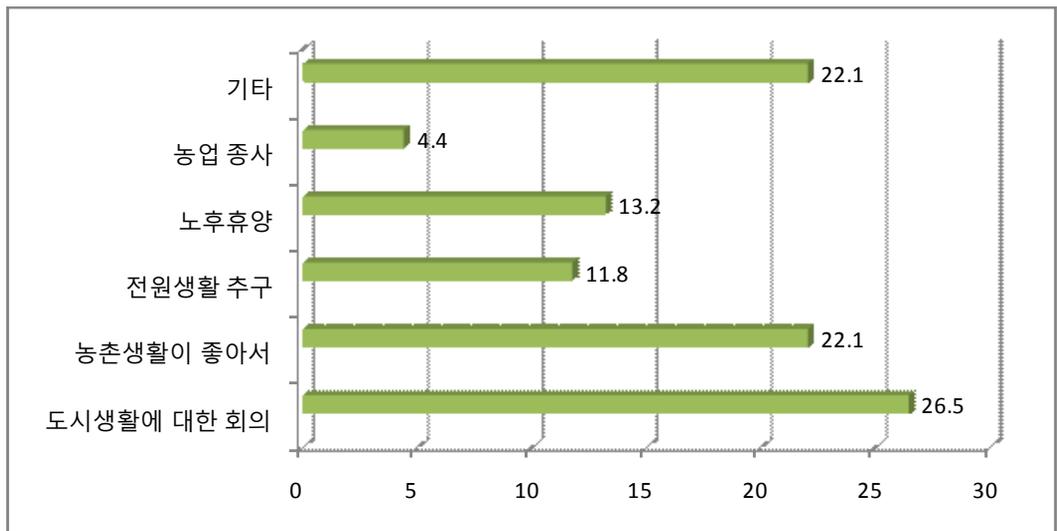


[그림 3-10] 응답자의 이주 전 주소지 분포(%)

3. 귀농·귀촌 실태

1) 귀농·귀촌의 목적⁵⁾

귀농·귀촌의 목적을 보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인간다운 삶을 위해) 때문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농촌생활이 좋아서 22.1%, 직장 은퇴 후 노후휴양을 위해 13.2%,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11.8%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경우는 4.4%로 매우 낮았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와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 등 농촌지역을 지향하는 응답이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경향은 과거 보다 확연히 낮아졌으며 이것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의해 귀농·귀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11] 귀농·귀촌 목적(%)

5) 도시민의 귀농·귀촌 목적은 특정의 단일 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음

2) 귀농·귀촌지 선택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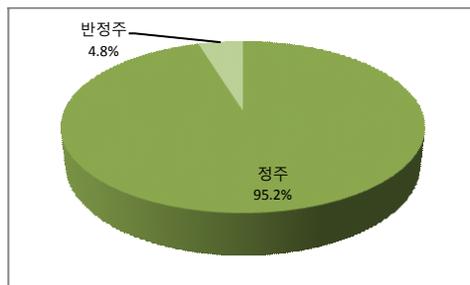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해 온 이유를 살펴보면,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이 거주(고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6%로 많았다. 그 외 농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5.0%, 지인의 소개 10.0%, 마을 사람(귀농·귀촌인 포함)들이 좋아서 10.0% 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고향이라는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41.3%로 매우 높았다. 그 외 농업조건이 좋아서(13.9%), 지인의 소개(11.6%), 대도시와의 접근성 유리(9.3%)순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 경우 농업조건이 좋아서가 42.9%, 젊은 귀농인이 많아서가 28.6%로 나타나 서천군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금산군, 청양군의 경우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귀농·귀촌 준비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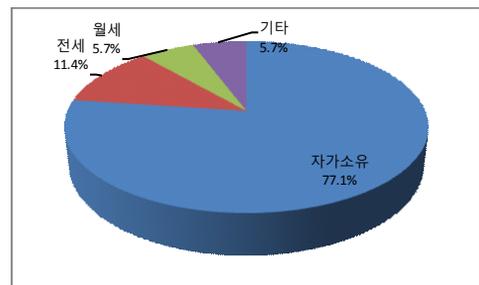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26.8%, 4년 이상이 23.2%, 2~3년 14.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60%가 2년 이하로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현재의 거주 형태

응답자의 95.2%가 현재의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생활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유 형태는 77.1%가 자가 소유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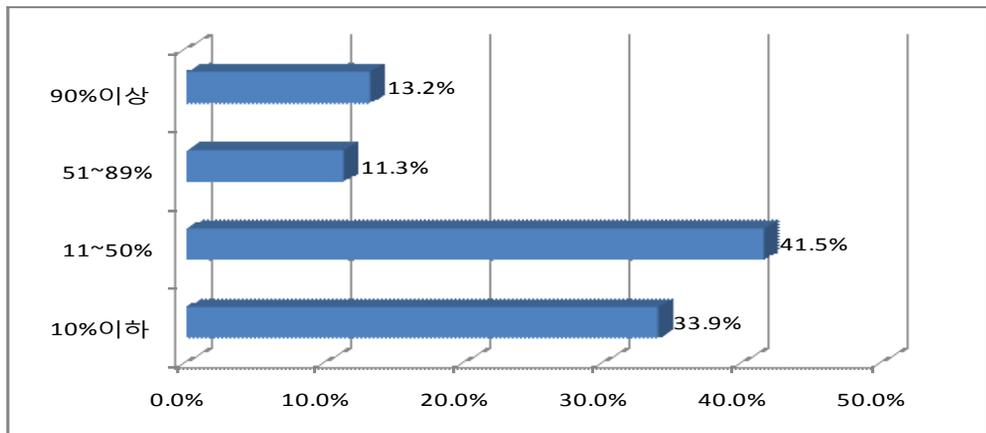
[그림 3-12] 귀농·귀촌자의 거주 형태



[그림 3-13] 귀농·귀촌자의 주거 소유 형태

5) 현재의 가계소득

가계소득 구조를 보면 응답자의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율이 11~50%인 경우가 41.5%로 가장 많이 차지 하였고, 10% 이하인 경우도 33.9%로 나타나, 귀농·귀촌인의 대부분이 농외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업농에 가까운 농업소득 비율이 90% 이상의 경우는 13.2%에 불과하다.



[그림 3-14] 귀농·귀촌가구의 농업소득비율(%)

6) 애로사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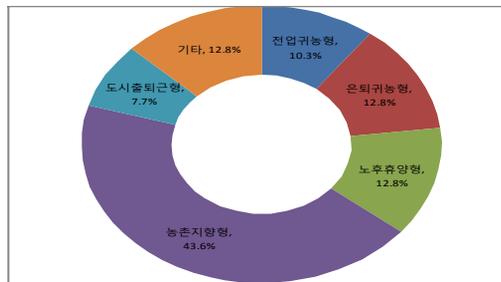
귀농·귀촌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착자금, 영농자금, 수입의 불안정 등 경제적 어려움(48.1%)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농업기술, 농산물 유통·마케팅에 어려움 13.5%, 교통문제 11.5%로 나타났다. 문화 및 교육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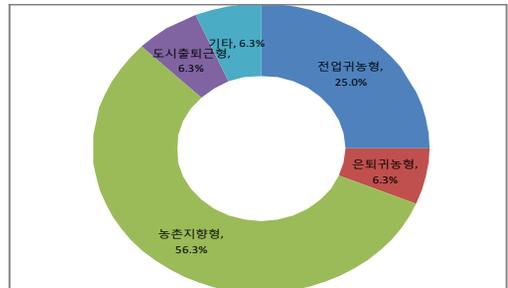
귀농·귀촌을 하게 된 궁극적 목적과 생활 행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제1장 제3절 유형별 기준 참조). 응답자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지향형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은퇴귀농형 18.6%, 전업귀농형 1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서천군의 경우 도시출퇴근형이 평균 보다 높았으며, 홍성군의 경우는 전업귀농형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또한 금산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은퇴귀농형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유형별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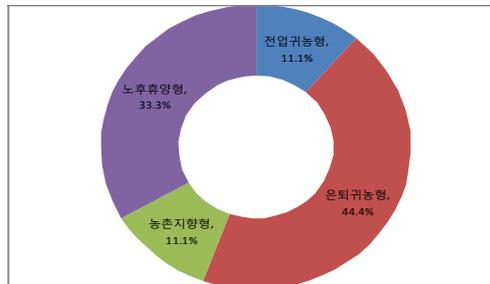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	기타
서천군	10.3	12.8	43.6	12.8	7.7	12.8
홍성군	25.0	6.3	56.3	0	6.3	6.3
금산군	11.1	44.4	11.1	33.3	0	0
청양군	33.3	50.0	16.7	0	0	0
평균	15.7	18.6	40.0	11.4	5.7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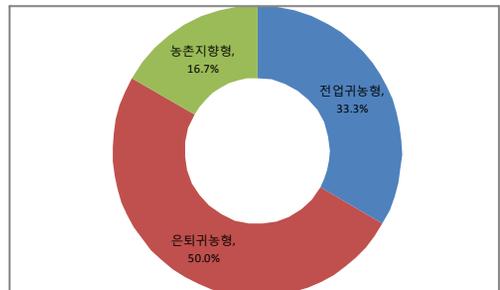
[그림 3-15] 서천군 귀농·귀촌 유형



[그림 3-16] 홍성군 귀농·귀촌 유형



[그림 3-17] 금산군 귀농·귀촌 유형



[그림 3-18] 청양군 귀농·귀촌 유형

1) 전업귀농형

전업귀농형은 본격적인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귀농한 비율은 15.7%(서천 10.3%, 홍성 25.0%, 금산 11.1%, 청양 33.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영농만으로 가계소득을 얻으려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은 과거 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율은 평균 74.0%로 대부분의 수입원은 농업활동을 통해 얻고 있으며, 영농규모는 약 1.54ha로 비교적 크며 과반수 이상이 경종(논농사+밭농사)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소유 36.8%, 임차 63.2%로 임차비율이 높다. 또한 전업귀농의 형태로 이주한 자의 연령대는 3~40대가 63.6%, 50대가 27.3%, 60대 이상이 9.1%로 비교적 젊은 층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은퇴귀농형

은퇴귀농형은 도시에서 직장을 은퇴 또는 퇴직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겸업 형태의 영농을 하고 있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귀농한 비율은 18.6%(서천 12.8%, 홍성 6.3%), 금산 44.4%, 청양 50.0%)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비율이 평균 31.3%로 가계소득의 약 2/3를 농외소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규모는 평균 0.74ha로 전업귀농형에 절반 수준으로 작으며, 영농형태도 시설원예, 축산, 가공형태가 많고 경종형태가 적다는 것도 전업귀농형과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소유 비율이 61.6%로 전업귀농형의 36.8%보다 높다. 이것은 영농규모가 작아 자가소유 비율이 높은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 유형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며 60대 이상 비율이 69.2%를 차지 전술의 전업귀농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8〉 전업귀농형과 은퇴귀농형 비교

구 분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가계소득	농업소득 74.0%	농업소득 31.3%
영농규모	1.54ha	0.74ha
영농형태	경종(벼농사)	시설원예, 축산
농지소유	자가소유 36.8%	자가소유 61.6%
연령대	3~40대 63.6%	60대 이상 69.2%

3) 농촌지향형

농촌지향형은 농촌생활·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형태이다.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40.0%(서천 43.6%, 홍성 56.3%, 금산 11.1%, 청양 16.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50대가 66.6%를 점유 비교적 젊은 층이 많으며 출생지가 도시지역이 경우가 77.7%로 전체 유형 평균 53.9% 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귀촌 준비기간을 보면 65.4%가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 비율이 25.7%에 불과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후휴양형

노후휴양형은 은퇴 후 농촌에서 휴양 또는 건강을 위해 요양할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형태이다. 전체 유형 가운데 11.4%(서천 12.8%, 금산 33.3%)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홍성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이러한 유형의 응답자가 없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85.7%를 차지하며, 출생지를 보면 71.4%가 농촌지역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농촌지역 출신 비율이 높다.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귀촌한 경우 대부분이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본인 혼자 또는 가족 일부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60.0%가 영농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균 영농규모가 0.33ha로 매우 작으며 대부분 소규모의 시설원예 및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5) 도시출퇴근형

도시출퇴근형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체 유형 가운데 5.7%(서천 7.7%, 홍성 6.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4-50대로 비교적 젊은 층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형태를 보면 절반 정도가 상시 농촌지역에 거주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형태라 생각할 수 있다.

6) 기타

상기의 유형이외 음악, 미술 등 본인 및 가족의 취미활동을 위해서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전체의 8.6%(서천 13.2%, 홍성 6.3%)를 차지하고 있다.

제4장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여기서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시행(계획)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정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는 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장수군 사례를 국외의 경우 일본 오카야마현(岡山県)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1절 국내 사례 분석

1. 강원도 양구군 사례

1) 도시민유치 전담기구(상담창구) 운영

(1) 목적

- 도시민이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일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종합정보센터가 필요함
- one-stop 서비스 운영으로 토지, 주택, 귀농·귀촌 지원사업, 영농교육 등의 필요한 정보 제공

(2) 사업내용

- 귀농·귀촌 오프라인 상담창구
-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 토지, 빈집정보, 귀농·귀촌 지원사업정보 제공
- 농기계임대알선, 영농기술 교육지원
- 귀농·귀촌인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2) 귀농·귀촌 종합홍보물 및 정보지 제작 배포

(1) 목적

- 양구지역을 알리고 귀농·귀촌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 귀농·귀촌 매뉴얼과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지속적으로 양구군과 양구의 귀농·귀촌 사업 홍보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한 접근으로 356일 언제나 양구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입체적 홍보망 구성

(2) 사업내용

- 매월 정기소식지 발간 : 1,000부/월 제작 배포, 귀농·귀촌사례 소개, 귀농·귀촌 관련 제도, 개인 맞춤형 귀농·귀촌 프로그램 짜기, 귀농·귀촌 체크리스트와 활용법
- 온라인 웹진 발간 : 월1회, 홈페이지 게재
- 디지털책자(E-Book) 발간 : 년1회

3) 홍보 프로모션

(1) 목적

- 양구군 대표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를 제작 운영하여 축제 참가자에게 양구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도시민 유치사업 홍보
- 양구군에 대한 좋은 추억을 통해 살고 싶은 양구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주, 정착의 계기를 마련함

(2) 사업내용

-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 귀농·귀촌 성공 사례, 귀농·귀촌 관련 양구군의 프로그램과 환경, 여건 소개, 양구군의 귀농·귀촌 프로그램 설명회, 맞춤형 귀농·귀촌 컨설팅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양구에서 살고 싶은 집 그리기, 양구에서 추억 만들기
-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 양구로의 이주와 정주관련 의향조사, 홍보리스크 확보

4) 지역 밀착형 귀농 귀촌학교 운영

(1) 목적

- 귀농 전 귀농 및 농업전반에 대한 기초교육 : 귀농철학, 집짓기, 건강 먹거리, 논농사,

- 발농사, 생태환경문제, 귀농 선배와의 대화, 귀농 길잡이 등 현장교육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교육 실시
- 3농(농촌, 농민, 농업)과의 교류를 통한 정보 수집 :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빈집정보, 농업후견인, 지역정보 제공
 - 양구군에 대한 신뢰 형성 :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지원으로 양구군에 대한 신뢰 형성
 - 귀농선배, 주민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관내 귀농자와 소통함으로써 귀농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임
 -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농활형 프로그램 운영, 농가 소득 프로그램운영

(2) 사업

- 가족 캠프형 귀농학교
- 축제 연계형 귀농학교
- 현장 통학형 귀농학교

5) 마을체재 귀농실습 프로그램 운영

(1) 목적

- 귀농 전 다양한 영농실습을 통한 기초교육 실시
- 농촌의 현실과 문화를 몸소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귀농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주민들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주거제공 및 농사지도

(2) 사업내용

- 체재형 주거공간과 실습농장 연계프로그램 운영
- 특용작물 및 농사교육
- 영농일기, 관찰일기 작성
- 농촌문화체험
- 계절별 농사체험
- 농업기술센터 교육과 연계한 이론교육

6) 귀농인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1) 목적

-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귀농인이 정착에 도움을 줌
- 지역주민들에게 귀농·귀촌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마찰 없이 순조롭게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내용

- 귀농자와의 간담회 운영 : 연 2회
- 귀농인의 밤 : 연 1회
- 지역주민 귀농·귀촌 설명회 : 연 4회

7) 농촌형 일자리 발굴사업

(1) 목적

- 농촌형 일자리에 대한 조사연구로 양구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이주실행 유도를 위한 관내 농촌형 일자리 확보
- 기존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로 시너지효과

(2) 사업내용

-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연계

8) 귀농·귀촌 동호회 운영지원

(1) 목적

-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들과의 교류 도모
- 동호회를 통해 정보소통, 갈등해결 등 도모

(2) 사업내용

- 귀농·귀촌 동호회 활성화 지원 : 동호회 모임구성, 교육프로그램지원, 간담회 개최
- 행정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 영농컨설팅 및 상담

2. 전라북도 진안군 사례

1) 귀농·귀촌협회 구성 및 지원

(1) 목적

- 행정과 협력하여 읍면별 귀농·귀촌인 모임을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귀농귀촌협회로 전환(09년 12월)
-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민간전담조직으로서 책임성,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 활동 지원
-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적 역할 수행

(2) 사업내용

- 귀농귀촌협회 활동 및 사무운영 경비 지원
- 상근인력 인건비 지원

2) 귀농·귀촌 홍보 매뉴얼 제작

(1) 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진안 및 귀농·귀촌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제공으로 정책 취지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인식도 제고
- 귀농·귀촌인이 알고자 하는 각종 정보를 가이드북화 하여 제공

(2) 사업내용

- 귀농·귀촌 홍보 및 매뉴얼 제작 배부(연 1회)
- 귀농·귀촌 상담 및 설명회 개최

3) 출향인 고향사랑 촉진프로그램 공모

(1) 목적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마음을 자극하고 귀향을 지원하면서 귀농·귀촌 알림이 및 안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2) 사업내용

- 시골학교 동창회, 수물민 고향 옛길 걷기, 추억의 옛날 사진전시회 개최

- 모교 도서 기증 및 바자 행사
- 출향인 자녀 귀향 체육대회

4) 귀농·귀촌학교 운영

(1) 목적

- 지역에 뿌리를 둔 차별화된 귀농·귀촌학교 운영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의 창구 역할
- 귀농·귀촌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과 정착한 귀농·귀촌인 사이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귀농·귀촌 유도

(2)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 및 정착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학교 운영

5) 귀농·귀촌인의 이웃주민 초청 집들이

(1) 목적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에 정착률을 유도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 마련
- 귀농·귀촌인이 이사 후 마을사람들을 초대, 행정공무원, 이웃한 귀농·귀촌인 및 마을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2) 사업내용

-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교류증진 집들이 프로그램 지원
- 1회당 20만원 지원

6) 읍면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운영

(1) 목적

- 읍면별 귀농·귀촌인 사이의 상호 교류증진의 장을 제공하여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 조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사업내용

- 간담회, 체육대회, 등반대회, 집들이 등 단합행사 형태로 추진

7) 귀농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사업 지원

(1) 목적

-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분야의 소규모 농촌 창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분야의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농촌창업과 지역사회 기여 사업 지원

3. 전라북도 남원시 사례

1)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 조성

(1) 목적

- 귀농·귀촌자들이 남원지역에 조지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조성 및 귀농·귀촌자들의 공동체 조성지원
- 이를 통해 귀농·귀촌자들이 상호협력하고 의지하여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2) 사업내용

-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 조성: 상하수도, 도로, 부지정비 등

2) 장기체류형 거주공간 마련

(1) 목적

-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현장체험교육 및 귀농·귀촌 이주희망자의 단기현장체류 공간 필요
-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체류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유도

(2) 사업내용

- 귀농·귀촌 체류형 실습농장 공간 마련
- 귀농·귀촌 체류형(농촌·농가체험)장 조성
- 정보교류의 장 등 만남의 장소로 활용 조성

(3) 기대효과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의 농촌생활 이해와 불안심리 해소
- 귀농·귀촌 희망인들의 안정적인 농촌현장체험 기회 제공으로 귀농·귀촌 희망인들을 남원시 농촌마을에 정착 성공률 제고

3) 전원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1) 목적

-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지역의 이미지 정보 제공 및 우수성 홍보
-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귀농·귀촌 관심 증대 및 유치기반 확보

(2) 사업내용

- 농촌이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정책적인 준비사항 설명회, 상담, 전원마을 조성대상자 방문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및 평가

4)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1) 목적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자에게 지역에 대한 쉽고 편리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라 목표시장에 대한 홍보물 발송 필요

(2) 사업내용

- 홍보물: 귀농지도 제작, 전원체험마을 소개, 귀농정보 등
- 홍보대상: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 출향인, 귀농단체, 인연 맺는 기업체 임직원, 남원지역 관광객
- 배부방법: 우편발송, 각종행사장 방문 배부

5) 귀농·귀촌교육프로그램 지원

(1) 목적

-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식 등 교육을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귀농전

문 교육수료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하여 귀촌의 전반과정에 대해 학습하도록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귀촌에 따른 기초소양
- 자립적인 귀촌인 마인드 제고
- 농촌현장 적응 위주로 교육

6) 이주도시민 정착률 적응 프로그램 운영

(1) 목적

-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및 농촌자립을 위한 각종 체험마을 운영관련 지원정책 홍보
- 이주도시민을 위한 상호교류 및 다양한 농초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2) 사업내용

- 귀농·귀촌 이주도시민 후견인제 운영 프로그램 실시
- 귀농·귀촌인 협의회 운영 및 적응교육 지원 알선

7)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1) 목적

- 도시민유치사업의 전반적인 귀농·귀촌의 붐을 조성하며 귀농·귀촌에 따른 정보제공과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희망인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귀농정착을 유도

(2) 사업내용

- 각종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진행요원 배치
- 지역 농촌마을에 농촌체험관광 홍보

제2절 국외 사례 분석(일본)

1. 오까야마현 사례

1) 농업연수 지원

(1) 농업체험 연수

농업체험연수란 오까야마현 내에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비농가출신으로서 소규모 농업을 목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제도이다. 연수과정은 농업경영업적이 우수한 선진농가에서 약 한 달간 홈스테이를 하면서 농사일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이 연수제도를 받은 자 중 90여명이 실제로 농촌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 모집대상 : 55세미만으로 오까야마현 내에서 농업을 하고자하는 비농가 출신
- 모집기간 : 매년 6월
- 모집인수 : 약 20명(매회)
- 연수기간 : 약 1개월
- 연수내용 : 선진농가에 실제적으로 체재하면서 농사일과 농촌생활 등 체험
- 연구비 : 없음(단, 연구기간 중의 상해 보험료는 연수생 부담)

(2) 농업실무 연수

앞서 설명한 농업체험연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이며 연수기간은 2년 이내이다. 연수내용은 우선 전문적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한다. 또한 낮은 농촌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맺는 방법 등도 배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경영체로서 안정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수비용은 연수기관으로부터 전액 지급되므로 연수자 개인부담은 없다.

- 신청자격 : ① 신규참여형 - 앞서 설명한 (1) 농업체험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
② U턴형 - 55세미만의 농가출신자로 양친 중 농업경영주로부터 농업경영을 분리해 새로운 경영형태로 귀농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법 규정에 의거하여 취농계획서⁶⁾를 작성, 관할 縣지사(우리나라의 도지사에 해당)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 후 귀농하고자 하는 市町村이 지정하는 연수사업기관에 연수를 신청한다.
- 연수기간 : 신규참여형 2년 이내, U턴형 1년 이내
- 연구내용 : ① 기초연수 - 농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 연수
 ② 응용연수 - 포장이나 시설에서 행해지는 실천연수 및 선진농가 파견
 ③ 사업소연수 - 농협 등 관련기관에서 영농연수, 지역주민과 교류
- 연수기관 : 농협, 농업생산법인, 시·정·촌농업공사
- 연수비용 : 월 15만엔(약 200만원), 전액 보조

〈표 4-1〉 농업체험연수 및 농업실무연수를 통한 귀농까지의 과정

시 기	주 요 내 용
농업체험연수 신청까지 (매년 5월까지)	1. 귀농상담 2. 농업·농촌의 체험 3. 영농계획 검토(가족동의, 자금준비 등) 4. 선진농가 방문 5. 귀농예정지 및 재배작목 선정
6월말까지	1. 농업체험연수사업신청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2. 귀농 오리엔테이션 신청서 제출
7월 상순	오카야마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7월 중순	각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지역견학 포함)
7월 하순 ~ 8월 상순	각 지역별 면접
9월 ~ 10월	농업체험연수 실시(1개월간)
농업체험연수종료 후 ~ 농업실무연수개시 전	1. 귀농계획 신청 ⇒ 인정 2. 주거 및 농지 확보 3. 농업실무연수 신청 ⇒ 인정 4. 귀농예정지의 주민들과 사전 친목도모
다음해 4월	실무연수개시(2년 이내)
2년 후	귀농개시

6). 취농계획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으며 계획서에는 취농목표, 농업연수경험 및 계획, 취농준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입.

이밖에도 신규귀농 또는 정년귀농을 하고자하는 자를 위해 오카야마현은 다양한 농업연수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65세미만의 정년귀농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인귀농연수」 및 자격제한 없이 누구라도 참가 가능한 「지역귀농공부방」, 「일요일귀농세미나」 등이 있다.

〈표 4-2〉 오카야마현 귀농지원을 위한 연수

연수명(대상연령)	연수장소	연수내용	연수기간(연간)
사회인귀농연수 (65세미만)	농업대학교	각종 농업기술 연수	60일간
지역귀농공부방 (제한 없음)	기초자치단체 농협	지역실정에 맞는 재배기술 연수	5일~15일간
일요일귀농세미나 (제한 없음)	체험학습농원	농업의 기초지식 및 기술 습득	9일간
청취생제도 (제한 없음)	농업대학교	농업대학교 수업의 자유청취	20일~30일간
신규귀농자연수 (제한 없음)	농업대학교	신규귀농예정자를 대상	기초연수:10일간 전문연수:15일간

자료출처 : 오카야마현 농림수산부 농업경영과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3) 사회인 귀농연수

이 연수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과수, 채소, 화훼 3코스가 설치되어 있다. 연수대상은 65세 미만이면 누구라도 상관없으며 매년 응모가 급증하고 있기에 2006년부터는 모집정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렸으며 연수일수도 4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였다. 연수장소는 오카야마현 농업대학교이며 연수비용은 각 코스별 1만엔(약 13만원)이다.

(4) 지역귀농공부방

오카야마현 내의 기초자치단체인 市·町·村 및 JA(일본농업협동조합) 등이 실시하는 연

수제도이다. 귀농공부방의 유지·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중 50%를 오카야마현이 보조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운영주체인 市·町·村 또는 JA(농업협동조합) 등이 부담 한다. 연수기간은 5일 ~ 15일간이다. 2006년 현재 오카야마현 내 8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연수비용은 무료이다.

(5) 일요일 귀농세미나

이 세미나에서는 채소, 벼, 화훼 등의 초보적인 재배방법에 대해 실습위주로 진행되며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세미나 장소는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체험학습농원이며 참가자의 연령제한은 없다. 연수비용은 9일간(9회) 1,700엔(약 22,000원)정도로 무척 저렴하다.

2) 귀농자금 지원

(1) 귀농연수자금

귀농연수자금은 농업대학교 및 각종 연수교육시설, 국내외 선진농가 등에서 농업연수를 받을 경우 지원해주고 있는 자금을 말한다. 대부한도액은 연수교육 및 국내외시찰일 경우 월 5만엔, 개량보급원에 의한 지도연수일 경우는 최고 200만엔까지이다.

(2) 귀농준비자금

이 자금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개시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즉 귀농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비용, 주거이전비용, 영농에 필요한 자격증취득비용 등이 지원자금 대상이 된다. 대부한도는 최고 200만엔까지이다.

(3) 귀농시설자금

귀농시설자금이란 실제적으로 농업경영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시설설치비용 및 농기계구입비용, 비료·농약구입비용 등에 대해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대부한도는 40세미만의 청년인 경우 3,700만엔, 40세 이상 65세미만의 中老年인 경우는 2,700만엔이다.

대부기간은 농업경영개시 후 5년간이다.

〈표 4-3〉 오까야마현 귀농지원자금의 종류

	귀농연수자금	귀농준비자금	귀농시설자금
사용 용도	수업료, 교재비, 시찰연수비	주거이전비, 자격취득비, 관련서적구입비	시설설치비 기계구입비 비료구입비 농약구입비 육묘구입비 농기구수선비
대부 한도	1. 연수교육 : 월 5만엔 2. 국내외시찰 : 월 5만엔 3. 개량보급원에 의한 지도연수 : 200만엔	200만엔	1. 청년 : 3,700만엔 2. 中高년 : 2,700만엔
대부 기간	1. 연수시설 : 청년-재학기간, 中高 년-1년 2. 국내외시찰 : 청년-2년, 中高년 -1년 3. 개량보급원에 의한 지도연수 : 청년만 해당-1년		경영개시 후 5년간
상환 기간	1. 청년 : 4년 거치 12년 상환 이내 ※ 조건불리지역일 경우 9년 거치 20년 상환 이내 2. 中高년 : 2년 거치 7년 상환 이내 ※ 조건불리지역일 경우 5년 거치 12년 상환 이내		5년 거치 12년 상환 이내
대부 대상	○ 인정취농자 : 縣知事(도지사)에 의해 취농계획을 인정받은 자 ○ 연령구분 : 청년-15세 이상 40세미만 中高년-40세 이상 65세미만		
대부 담당	오까야마현 청년농업자육성센터		농협 등의 일반금융 기관

자료 : 오까야마현 농림수산부 농업경영과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2. 시사점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농후계자 육성프로그램 확립

개인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고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푸른 학원 개최사업, 고교 졸업 후에는 농업전문 강좌제 연수사업 등을 통해 영농기술·영농경영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습득에 대한 단계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지원책 마련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원책인 아닌 각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 영농후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자가지역에 맞는 작물 선택, 재배기술, 농업경영지표제공, 주택제공 및 알선, 이주비용보조 등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귀농생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3) 전담 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체계적 귀농 상담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홈페이지와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고, 각 도도부현의 홈페이지는 그 지역의 취농사례, 교육기관,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자금지원 등을 안내·상담하며, 상담센터는 청년농업자육성센터, 농업회의, 농촌청소년 육성 재단 등의 귀농인력육성이나 확보와 관련된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행정 부서를 지정한 경우도 있으며, 부서 간 협력을 통하여 귀농에 대한 상담,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 등 귀농희망자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체제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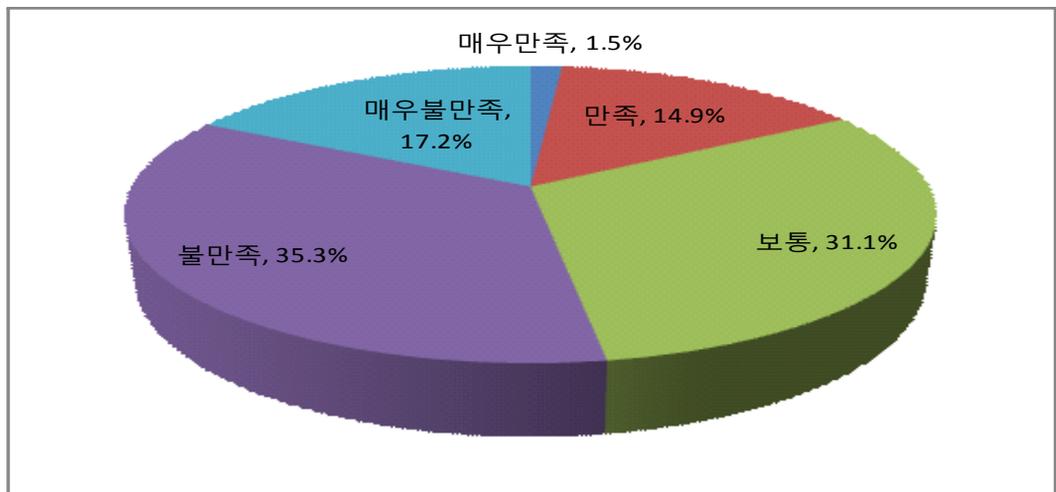
제5장 귀농·귀촌 유형별 지원 방안

제1절 지원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

1. 지원책에 대한 평가

응답자의 67.2%가 귀농·귀촌 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32.8%만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받지 않은 비율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원책(제도)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귀농·귀촌한 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원책에 대한 전체적 평가를 살펴보면 불만족스럽다 35.3%, 매우 불만족스럽다 17.2%로 약 53%가 현재의 지원책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고, 만족스럽다(만족+매우만족)라는 응답은 16.4%에 불과하다.



[그림 5-1] 지원책에 대한 평가 결과

지원사업별 평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표 5-1〉 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사 업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 사업	0	12.5	50.0	12.5	25.0
농업인턴제 사업	0	12.5	25.0	50.0	12.5
창업농후계농업인지원 사업	9.1	9.1	36.4	36.4	11.1
신규후계농업인지원 사업	0	0	44.4	44.4	11.1
창업농후계인제 사업	0	0	25.0	62.5	12.5
농업창업지원 사업	0	10.0	10.0	70.0	10.0
귀농인농업인턴제 사업	0	25.0	12.5	37.5	25.0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사업	7.1	42.9	21.4	14.3	14.3
귀농인의집지원 사업	0	37.5	37.5	0	25.0
전원마을조성 사업	0	0	50.0	25.0	25.0
평 균	1.5	14.9	31.1	35.3	17.2

2. 유형별 정책수요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귀농·귀촌 유형에 따른 정책적 수요를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전업귀농형의 경우는 영농과 직접적 관계가 되는 영농기술이나 정보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기술의 보급, 농산물 판로(유통)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았으며 또한 영농활동에 필요한 토지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수의 귀농인들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과 귀농자에게 공유지(국유지, 시·군유지 등)를 장기저리임대 형태로 제공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외 귀농인 멘토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은퇴귀농형의 경우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는데, 전업귀농형과 유사하게 영농 운전 자금, 농산물 유통 지원, 농기계 지원 등 영농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복지·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정비, 빈집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귀농·귀촌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농촌지향형의 경우 주로 귀농·귀촌인 간의 교류 활성화, 기존 지역주민들과의 융화 대책, 일부 지자체에 있는 귀농지원센터의 지원(운영비, 인건비)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노후휴양형의 경우 문화적 인프라의 확대 및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 보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도시출퇴근형의 경우 특별한 정책적 수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업귀농형과 은퇴귀농형은 직접적 생계와 연관된 영농활동과 관련된 정책적 수요가 많았으며, 영농활동과 특별히 상관이 없는 농촌지향형, 노후휴양형의 경우 마을주민과의 융화, 문화적 인프라 확대 등 농촌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요약】

1. 사실 시·군의 담당 공무원의 적극성 및 이해도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비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시·군의 입장에서는 귀농·귀촌자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에 대비한 전문 인력 교육 및 인력 보충이 되었으면 합니다.(홍성군 홍동면 거주 귀농인, 남자, 40대, 전업귀농형).
2. 처음부터 완전한 정착보다 일시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농촌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홍성군 홍동면 거주 귀농인, 남자, 40대, 전업귀농형).
3. 2년 전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해 왔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주택 구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빈집에 관한 정보나 매매(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어 살 집 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지자체나 다른 관련 단체에서는 귀농인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서천군 거주 귀촌인, 남자, 50대, 농촌지향형).
4. 귀농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 차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명목만 있는 지원책이 아닌 제대로 수요를 파악 예산을 확보해 농기를 바랍니다. 귀농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므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 되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서천군 거주 귀촌인, 남자, 50대, 노후휴양형).
5. 많은 귀농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300평 정도의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에 본격적으로 영농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아직 체력적으로 충분히 농사를 짓 수 있기에 행정기관에서는 국유지나 군유지를 장기저리로 임대해 주면 귀농자들의 토지 확보 문제에 많은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을 신청 3천만을 지원받았으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70%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기에 현실과 매우 거리 멀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 실제로 귀농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서천군 거주 귀농인, 남자, 60대, 은퇴귀농형).
6. 약 8년 전 귀농을 하여 현재 장류 및 차류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허가 기준이 대기업(대규모)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소규모 가공업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영농을 하기 위한 기본적 농기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서천군 거주 귀농인, 남자, 60대, 전업귀농형)

【인터뷰 내용 요약】 계속

7.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농촌지역에서 찾기에는 무척 어렵기에 주변 도시지역에서의 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절실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각종 채용공고 안내 및 관련정보의 제공에 주었으면 좋겠구요 농촌지역에서 농업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서천군 거주 귀농인, 50대, 남자, 은퇴귀농형)

〈표 5-2〉 유형별 주요 정책수요 정리

유형	주요 정책 수요
전업귀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주택 신축 저리 용자 - 귀농관련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 - 영농기술 및 지식 보급 - 농산물 판매, 유통 경로 정보 제공 - 토지구입비 지원 - 공유지(국유지, 시·군유지)의 장기저리 임대 - 소규모 가공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 완화
은퇴귀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에 관한 정보 제공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 현실성 있는 영농 운전자금 지원 - 연령, 사업에 맞는 장기저리 용자 지원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과 지원 -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보급
농촌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지원센터의 소프트웨어(운영비, 인건비) 지원 - 유희농지, 빈집에 관한 정보 제공 - 빈집수리비 지원의 증액
노후휴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외 일자리 발굴 및 보급 - 문화적 인프라 확대
도시출퇴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없음

제2절 유형별 지원 방안

향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그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농촌 이주 동기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조사결과를 토대로 귀농·귀촌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유형 간 명확한 구별이 어려워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3장에서 도출한 5가지 유형 가운데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공적 지원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노후휴양형 및 도시출퇴근형을 제외한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1. 전업귀농형

1) 기본방향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과 지역의 핵심농업인으로서 역할이 가능한 전문 귀농인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지원 방안

첫째, 현재의 지원책의 대부분은 현장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현실성 있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의 선택과 집중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귀농인이 영농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 영농을 추구하고자 할 때 성공 잠재력이 큰 귀농인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귀농인이 도시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농산물가공, 유통, 마케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선도농가와 함께하는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기존 농가가 축적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에 관한 지식, 경험을 새로운 귀농인에게 원활히

전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인증한 선도농가와 귀농인을 연결,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교육·지도해 주는 ‘귀농인 멘토링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선진 사례: 일본 쓰루다마치 마을의 귀농자 융화책】

1. 새롭게 이주해 온 귀농자에게 농업후계자 모임에 가입하도록 권유
 - 농업연수, 학습회, 선진지 시찰, 정보교환, 친목도모
2. 각종 농업생산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
 - 귀농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생산단체(작목반)를 선택, 가입
3. 농업경영 이동상담실 운영
 - 농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상담실 운영

2. 은퇴귀농형

1) 기본방향

은퇴귀농인의 제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영농 지원과 비농업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지원 방안

첫째, 은퇴귀농인의 연령, 영농규모 등에 적합한 맞춤형 영농교육이 요구된다. 은퇴귀농형의 경우 대부분이 1ha미만의 소규모 영농이므로 전업귀농형과는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 즉 소규모 농지에서 가능한 시설원예, 특작, 농산물 가공 등으로의 유도 및 연령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영농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은퇴귀농인에 적합한 비농업부문의 일자리, 예를 들어, 농촌관광 분야의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직업기회 창출에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 내 한정된 일자리 외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기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및 소규모 농산물 유통,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3. 농촌지향형

1) 기본방향

농촌지향형의 귀촌인에게는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침체된 농촌지역사회 활력소로서의 역할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2) 지원 방안

첫째, 귀촌인이 도시생활에서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소규모 창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작물 대행 전문 영농회사, 도농교류사업, 농산물의 가공·유통산업(6차산업), 농촌레스토랑, 마을경영 보조, 로컬푸드 관련사업의 창업 지원을 들 수 있다.

둘째, 귀농·귀촌자가 이주한 지역사회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사회 연결망 구축을 위한 융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경우 영농활동과 관련, 자연스럽게 마을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네트워크 형성에 별 무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농촌이 좋아서 농촌으로 이주해 온 경우는 기존마을 주민과의 괴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열어가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마을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등을 열어 신규주민과 기존주민 간에 화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이 농촌사회 및 농촌주민에게 전파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적은 공적자금으로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귀농·귀촌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귀농·귀촌인 동호회 결성 지원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동호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동지의식 조성이 가능하다.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窮極的 목적은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귀농·귀촌인의 농촌 이주 목적, 수입원, 생활 형태, 영농 형태 등을 고려 귀농·귀촌행태를 유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적합한 지원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는데, 즉 분석대상을 귀농인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해 온 모든 이주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농촌 이주 목적과 수입원, 생활 형태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독창성이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과거 10년 간의 귀농가구 동향 분석 및 충남의 30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으로의 이동행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적으로 충남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귀농·귀촌 정착 실태와 관련 지원책에 대한 평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진사례를 국내외로 나누어 검토 하였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관련 지원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을 토대로 5가지 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충청남도는 물론 시·군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들은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

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결론에서 제시한 지원 방안들은 충남도나 시군에서 관련 지원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써 충분히 활용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귀농·귀촌인의 행태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별 적합한 지원방안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조사 샘플(설문조사, 인터뷰조사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해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유형 구분까지는 못하고 필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유형화 했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에 대해 지역별(시군별) 특징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천, 홍성, 금산, 청양 4개의 지역만 다루어 충남 16개 시군별 특징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충남지역 전체적인 귀농·귀촌 실태에 대한 특징을 밝힐 수 없었다는 점도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싶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 5가지 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구체적 실천 내용에 대한 보완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정책화하여 사업화를 위한 세심한 작업도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이다.

참고 문헌

-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운미·김정태·이성(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1권 제1호.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3호.
- 김창현·강호제·이종열, 2008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2)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2009 「2009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워크숍」 자료집
- 박문호·김정섭·허주녕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 귀농사례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규선·변재면,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 유학열, 2010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충남리포트 제40호, 충남발전연구원구원
- 유학열·박철휘·한상욱·조봉운(2007) 「영농 후계인력 영농정착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현안과제연구.
- 이민수·이승형·김명룡·김정섭(2009)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상호(2008),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 및 지역주민과의 만족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 이재철·이도선, 2006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임경수·전호성·김종구·심수영·김도희(2006) 「도시민의 농어촌 체제 및 정주 활성화
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주)이장.

정천섭, 2008 「귀농, 귀촌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 귀농, 귀촌 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
전북 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과 농업 3호

충남발전연구원, 2008 「일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정책 사례집」 충남발전연구원 번역
서 2008-01

충청남도, 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부 록

【부록-설문용지】

「귀농·귀촌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귀농·귀촌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그 결과도 순수한 정책수립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2010년 7월

실시기관: 충남발전연구원
협조기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I.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0~19세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69세 ⑦ 7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제대학졸 ④ 대학원졸

4.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 직접 기입 () 시·군 () 읍·면 () 리

5. 귀하의 귀농·귀촌 **前 거주지**는?

⇒ 직접 기입 () 시·도 () 시·구·군 () 읍·면·동

6. 귀하의 **출생지**는?

- ① 도시 지역(시·읍급 도시 이상) ② 농촌 지역(면급 지역 이하)

7. 귀하의 **가족구성원**은? (*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가족)

⇒ 직접 기입 본인 포함 총 () 명, 부모 () 명, 배우자 (유, 무), 자녀 () 명

8. 현재 가족과의 **동거 실태**는?

- ① 전원 동거 ② 일부 동거 ③ 독거(독신)

9.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귀농·귀촌기간)**은?

⇒ 직접 기입 () 년 () 개월

10. 귀하의 **귀농 前 직업**은?

⇒ 직접 기입 (구체적으로)

11. 귀하의 **현재 직업**은?

⇒ **직접 기입** (구체적으로)

12. 귀하의 **현재 직장 소재지**는?

- ① 동일 면지역 ② 동일 시·군지역 ③ 타 시·군지역

13. 귀하의 **특기**는(예, 컴퓨터, 목공, 그림 등)?

⇒ **직접 기입** (구체적으로)

II. 귀농·귀촌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귀하의 **귀농·귀촌 유형**은?

- ① 고향으로 이주 ② 타향으로 이주

15. 귀하의 귀농·귀촌 전 **농촌지역(면지역이하)생활 경험**은?

- ① 있음 약()년 ② 없음

16. 귀하의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기간**은?

-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17. 귀하께서 귀농·귀촌을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한개만 선택)?

- ①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②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③ 직장 은퇴 후 노후 휴양을 위해
④ 농업이외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⑤ 본인 또는 가족의 취미생활(그림, 도자기 등)을 위해
⑥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요양 치료)을 위해
⑦ 자녀의 교육을 위해
⑧ 농촌생활이 좋아서
⑨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인간다운 삶을 위해)
⑩ 기타 ()

지원책(사업)	평가(5단계)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농업인턴제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신규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창업농 후견인제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농업창업 지원사업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귀농인의 집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전원마을 조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기타()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5. 귀하께서는 귀농·귀촌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직접 기입 (구체적으로)

IV. 현재의 영농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되시는 분만 기입하십시오).

26. 귀하의 영농 규모는?

⇒ 직접 기입 총 면적 ()^m : 논 ()^m, 밭 ()^m, 과수 ()^m, 기타 ()^m
 총 사육 두수 () 두 : 소()두, 돼지()두, 닭()두, 기타 ()두

27. 귀하의 영농 형태는?(복수 응답 가능)

① 경종 ② 축산 ③ 시설원예 ④ 과수 ⑤ 기타()

28. 귀하의 토지(농지) 소유 형태(비율)는?

⇒ 직접 기입 자가소유비율 ()% + 임차비율()%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유학열 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10-15 · 충남의 歸農·歸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글쓴이 · 유학열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01(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49-6 03350

<http://www.cdi.re.kr>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